

# 전남 전국 첫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 고흥항공센터 일원 5G통신 전용망 등 구축 고령화·인구감소 농업문제 해결 인프라 확충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5G통신 기반에 ICT 기술이 융합된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실증 사업에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선정에 따라 전남도는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오는 2023년까지 164억원(국비 80억원)을 투입해 5G통신 전용

망과 드론 상용화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또 5G기반 드론을 활용한 벼, 마늘, 유자 등 수도작을 비롯해 딸기, 과수 등에 대한 사계절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순천대학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가천대학교 등이 참여하며, 5G통신을 기반으로 한 작물별 재배·관리 매뉴얼과 표준안

마련, 기업지원을 위한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인프라를 향후 그랜드 ICT 연구센터, 드론 규제 자유특구, 특별자유화구역,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드론 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3단계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 오는 2030년까지 15개 과제에 8,077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드론 규제자유특구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UAM 로드맵에 대응해 플라잉카, 드론택시 등 차세대 도심항공 교통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종합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블루 이코노미 핵심과제인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도시 전남 실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며 "5G통신과 지능형 드론을 농업에 접목한 전국 최초 국책사업인 만큼 전남이 드론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힘껏 돕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승욱 강진군수,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강진군민 등이 4일 오후 강진의료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광주 지역 확진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지역 입원 병상이 부족해 코로나 확진자 4명이 강진의료원에 입원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화

### 내달부터 과태료 8~9만원 상향 부과

광주시는 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 본격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는 관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주

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시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이 더욱 부각하고 있고, 무단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폐기물 성상조사 서비스'

### 효율적 생활폐기물 관리·처리시설 운영 지원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폐기물 성상조사 서비스' 제공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폐기물 성상조사는 생활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의 비율·원소성분·발열량 등 기초 특성을 평가한 조사다.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자원화·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및 적정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호남권에는 조사가 가능한 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은 열량계 등 분석기기를 갖추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숙련도와 신뢰성을 확보해 왔다.

환경산업진흥원의 조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조사를 필요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들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의뢰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진흥원 누리집(www.jeipi.or.kr)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산업진흥원 환경측정사업부(061-430-8341)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렬 환경산업진흥원장은 “폐기물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장폐기물 측정분석과 생활폐기물 성상조사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전남해양수산과학관, '휴관 연장'

### 9월까지...다채로운 체험형 관람시설 마련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관람시설 확충을 위해 9월 31일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관람객 안전확보를 위한 소화시설 현대화 공사를 위해 지난 2월 휴관에 들어가 7월부터 정상개관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

와 새로운 전시시설 마련을 위해 9월까지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단장될 전시관에는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모티브로한 인공연못을 제작해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하고, 전자 색칠놀이가 가능한 라이브스케치 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프

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5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산생물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수산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총 31개의 수족관에 참돔을 비롯해 능성어, 쥐치, 해포리 고기, 범돔, 파랑돔 등 36종 1만2,000마리의 남해안 토산어종과 해양 관상어를 전시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 “청정 자연으로 놀러오세요”

### 해남 장춘 계곡·곡성 청계동 계곡

#### 전남 7월 추천관광지

전남도가 청정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해남 장춘 계곡'과 '곡성 청계동 계곡'을 7월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해남 장춘 계곡의 최고 비경은 영화 '장군의 아들'과 '서편제'의 촬영지인 유선관과 피안교 일대다. 촘촘히 늘어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 7월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 시원함이 절정에 달한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흥사를 추천한다. 대흥사에서 주목할 점은 현판에 걸린 독특하고 다양한 글씨체들이다. 대흥보전은 조선 후기 최고 서예가인 원고 이광사의 친필이며, 무량수각은 추사 김정희, 표증사는 정조대왕의 편액이다. 이밖에 빼어난 서예가들이 남긴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해남 여행의 필수 여행지인 두륜산 케이블카와 전남 최초의 미로정원인 '두륜 미로파크'도 둘러볼 만하다.

청계동 계곡은 곡성의 명산인 동의산에서 시작해 섬진강까지 굽이치는 계곡으로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른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이름을 떨치며 전라남도 제1호 자연휴식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계곡에는 숙박시설과 마량한 식당이 없고 취사가 불가능하지만 약 1.7km 떨어진 거리에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오토캠핑장과 카라반을 갖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의병체험장과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전남도 월별 추천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종합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잡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 전남도,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협조 요청

전남도는 5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신중히 검토해 추진토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한 조치로, 지난 3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전달됐다.

현재 광주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오는 15일까지 시설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방문판매업체들도 오는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선제적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홍보관'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 집합금지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코로나19 지역감염원천 차단을 위해 시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공조하는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신속하고 강력히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M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같이 하는  
함께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